

① 기획기사 | 현장경찰 LIVE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도록

우리만의 퇴직문화를 만들자

취재 : 양세리 경사 · 광주북부서 범예과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김동우 경사 · 대구청 4기동대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6월과 12월, 현장활력소에는 어김없이 비슷한 제목의 글이 올라온다. "경찰을 떠나며", "퇴직자의 마지막 소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책임을 내려놓는 홀가분함과, 평생을 바친 조직을 떠나는 아쉬움이 한 문장 안에 뒤섞여 있는 글들이다. 담담한 어투 속에 조직을 향한 서운함이 묻어 나올 때도 있다. 날이 선 글보다 이런 담담한 글이 사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날이 선 글은 아직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읽히지만, 담담한 글에서는 어떠한 기대도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는 늘 후배들의 댓글이 달린다. "선배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로 시작해서 슬그머니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댓글들. 정작 잘못된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는 사과의 말을 남긴다. 그건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는 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안함과 민망함 같은 것 아닐까.

각 관서는 저마다 나름의 성의로 퇴임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퇴직 예정자들이 그 자리를 사양하고 조용히 문을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화려한 무대와 거창한 식순이 후배들에게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정년퇴임을 한 지역경찰관 출신 전직 박현우 경감(가명) 역시 후배들이 퇴임식을 준비하겠다고 나섰을 때 처음엔 손사래부터 쳤다고 한다. "거창한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 바쁘는데 나 하나 때문에 며칠씩 준비하게 만드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조용히 짐 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계급 사회 특유의 겸양의 정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까지"라는 자기 검열까지 더해지면 퇴임식장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어버린다.

결국 문제는 예식의 크기가 아니다. 누군가는 성의껏 준비하고, 누군가는 화환 하나로 끝내고, 또 누군가는 아예 거부하고 사라진다. 30년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순전히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느 서에 있었는지, 서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어땠는지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이 편차가 고스란히 후배들의 마음에 남는다. 그런데 박경감의 마음을 돌린 건 결국 후배의 말 한마디였다.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이젠 선배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어요. 생각해보니 제 가족들은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한번도 못봤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밤낮없이 일을 해야 했는지 가족들이 직접 보고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장보다 그게 더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은 화려한 퇴임식이 아니었다.

"그냥... 제가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후배들 손 한 번씩 잡아보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나눈걸로 족합니다. 퇴임식을 하면서 30년 세월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퇴임식에 참석하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거 같아요."

거창함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일까. 미국 등 해외 경찰의 은퇴 문화를 살펴보면 힌트가 보인다. 그들 역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대신 근무 마지막 날, 평생을 보낸 순찰차 안에서 상황실과 나누는 단 몇 분의 '마지막 무전(Final Call)'을 진행한다. 상황실 요원이 무전으로 퇴직자의 이름과 그의 노고를 전 경찰관에게 알리고 "이제 안전하게 귀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무전을 날리면, 현장의 동료들이 무전기 너머로 이를 들으며 거수경례를 보낸다. 청사 정문에는 정복을 입은 동료들이 도열해 박수를 보내는 '워크아웃 세리머니'가 이어지고, 그가 썼던 배지와 제복, 현장 사진을 전시하는 '명예의 벽(Honor Wall)'이 그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

영국 국가경찰웰빙서비스(NPWS)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라는 사건을 설명할 때 아예 '상실의 5단계'라는 표현을 쓴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설명하던 심리학 모델이다. 이 표현을 가져다 쓴다는 것 자체가, 조직이 퇴직을 '행정적 절차'를 넘어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두 사례가 공통으로 하는 일은 하나다. 큰돈을 들이는 대신, 그 사람의 서사를 조직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재직 중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로 시작하는 문장은 누구에게 붙여도 말이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필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디테일이다.

세리모니는 결국 남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지난 달 선배의 조출한 퇴임식을 준비했던 김민지 경장(가명)은 예산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선배님이 근무했던 사진들을 모았어요. 신임 때 사진부터 최근 순찰 사진까지요. 그걸 퇴임식장 앞에 전시했어요. '명예

의 전당'이라고 이름 붙이긴 좀 거창하지만, 저희끼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김경장이 이런 일을 즐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진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분이 30년 넘게 어느 동네의 밤골목을 지켰다는거잖아요. 젊을 때 얼굴부터, 최근 사진까지 제복을 입은 모습들이 시대만 다를 뿐, 같은 일을 한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잘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만 그는 매번 이런 식으로 후배 한두 명이 만들어가는 방식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경찰의 전통이면 좋겠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퇴임식이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편하게, 진짜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창한 규정이나 예산을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작고 반복 가능한 형식이다. 퇴직 근무자의 마지막 근무 시간에 맞춰 상황실에서 감사와 은퇴를 알리는 짧은 무전 하나, 퇴직자의 제복 입은 사진을 한시적으로 전시하고 마지막 날 후배들이 도열한 가운데 흉장이나 명찰을 전달하는 작은 의식, 그리고 퇴임 예정자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보는 짧은 시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부담' 때문에 세리머니 자체를 거부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현장 전체가 함께 배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경조사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30년을 함께한 동료'를 배웅하는 조직의 문화'로 여기는 태도다. 아름다운 전통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찰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이면 좋겠다. 이 글을 읽는 이들 모두 언젠가 퇴직을 하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퇴임식을 대신한 영상 한편

미술관으로 간 소장님,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려선 안 될 '조직의 온도'

김양남 경사 · 경남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언제부턴가 폴넷 게시판에는 '퇴임식'관련 소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퇴임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조용히 떠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셔서인지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퇴임식 없이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얼마 전, 26년 상반기 정년퇴직자이셨던 저희 파출소장님도 32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임식을 하지 않겠

다고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떠나는 이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내드리기엔 아쉬워서 고민 끝에 소장님만을 위한 퇴임 기념 영상인 '모바일 미술관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 퇴임 기념 영상의 시작 — 해설사 고양이와 소장님을 미술관으로 안내한다

영상은 고양이가 소장님을 모시고 미술관에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총 3개의 전시실을 해설사인 고양이와 소장님이 함께 관람하는 컨셉으로, 각 전시실에는 '소장님의 32년 경찰 인생, 그 길을 함께 걸어온 동료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마지막 제3전시실에는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 작품에 담긴 파출소 직원들의 마지막 인사 영상을 시청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수많은 브라운관 TV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을 이루듯, 파출소 전 직원이 각자의 모니터 속에서 전하는 마지막 영상 편지들이 모여 소장님의 퇴임 기념 탑을 완성한 것입니다.

수많은 작은 모니터가 모여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 듯, 우리 개개인의 헌신이 모여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거대한 탑을 지탱하고 있으며, 선배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 후배 경찰관들도 자랑스러운 경찰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의 퇴임 기념 영상을 폴넷에 올리자 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댓글들을 보며 저는 동료들이 느끼는 깊은 갈증을 보았습니다.



● 전시실에 걸린 소장님의 신임 시절 — 32년 경찰 인생이 작품이 되어 걸렸다

많은 선배님들이 퇴임식을 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배들에게 민폐가 될까봐’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동원되고, 의전 격식을 차리는 과정이 후배들에게 짐이 될까 미안했던 것입니다. 배려에서 시작된 사양이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차피 안하는 것’, ‘조용히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의 온기’와 ‘유대감’입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조직 사회에서 격식을 덜어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격식과 함께 ‘노고에 대한 경의의 표현’마저 생략되어 버린다면, 남겨진 동료들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선배의 쓸쓸한 뒷모습은 곧 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이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 조직에서, 남아서 헌신할 동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치안 업무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

은 강력한 물리력이나 차가운 법령만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손 잡아줄 동료가 있다는 ‘따뜻한 유대감’입니다.

퇴직 경찰관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우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남겨진 이들에게 “당신의 청춘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퇴임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진심이 담긴 마지막 인사’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직의 미래는 거창한 제도 개혁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온기가 우리 경찰의 미래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영성한 영상에도 뜨겁게 공감해주시고 댓글로 온기를 더해주시는 전국의 모든 동료분들께 깊은 감사を 전합니다.



● 마지막 전시실 — 동료들이 전한 꽃다발과 축하의 순간들이 작품으로 남았다

* 김양남 경사가 퇴직 선배를 위해 만든 영상은 경남양산경찰서 게시판에서 볼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의 경찰개혁

빈집 늘고 사람 줄어드는 시골, '인력' 대신 '구조'를 바꾼다

인구 절벽이 가져온 치안의 역설...해외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답을 찾아가고 있다

편집부



지방소멸은 경제와 행정의 문제를 넘어 치안 체계 자체를 재편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농촌과 외곽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세수와 공공서비스가 함께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경찰관 지원자가 줄고 퇴직·사직이 늘면서 인력난이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다행히 최근 들어 신규 채용이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치안 수요까지 함께 줄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은 보이스피싱 같은 비대면 금융범죄에 취약하고,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불법 점거나 절도, 마약 거래의 거점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여기에 넓은 관할 면적과 부족한 인력이 겹치면서 출동 시간은 길어지고, 정작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해외 여러 국가는 경찰관 숫자를 무작정 늘리는 대신, 조직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 혁신'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 구조 혁신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초기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를 다시 다듬어야 했고, 반대로 일본처럼 애초에 '얼굴이 보이는 경찰관'이라는 지역 밀착형 모델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경우도 있다. 결국 관건은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래 사례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작은 경찰서를 유지하기보다 관할을 넓히는 '광역 치안'

미국: 경찰서를 아예 없애는 소도시들

미국에서는 자체 경찰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과 소도시가 카운티 셰리프(보안관)나 인근 도시 경찰과 계약을 맺고 치안을 맡기는 '컨트랙트 폴리싱'을 넘어, 아예 자치경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곳들이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 미국 전역에서 수십 곳의 소도시가 자체 경찰을 해체했고, 특히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런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셈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자체 경찰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카운티와의 계약 비용이 저렴하고, 애초에 지원자가 없어 인력 채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소도시는 자체 경찰 예산을 접고 카운티 보안관실과 계약하면서 예산을 20% 넘게 절감하면서도 기존과 같은 순찰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관할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 보안관 한 명이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며 출동에 30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 모델을 운용하는 지자체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일본: 무조건적 통합 대신 '선별적 존치'로 지켜낸 밀착 치안

가장 눈여겨볼 만한 성공적 재설계 사례는 이웃 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도시에는 교대 근무 형태의 '코반(交番, 파출소)'을, 인구가 희박한 농산어촌과 외딴섬에는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상주하는 '주재소(駐在所)'를 운영해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치안 인프라가 고도화되며 주재소를 없애고 큰 단위로 통합하려는 흐름이 뚜렷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이 흐름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대신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방향을 틀었다. 일부 노후 시설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통합주재소' 등으로 효율화하되, 상주 경찰관이 마을 행사와 가정 방문을 통해 얼굴을 익히고 신뢰를 쌓는 '얼굴이 보이는 경찰관(顔の見える警察官)' 모델의 본질만큼은 의도적으로 지켜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 6,000여 곳에 달하는 주재소가 농산어촌 치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심인 도쿄 관내에만도 200여 곳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조직 재설계가 반드시 '더 크게 합치는'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시권은 효율화하되, 인구가 희박한 지역만큼은 지역 밀착형 거점을 선별적으로 유지·강화하는 '이원적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증명해왔다.

유럽의 광역화: 초기 진통을 다듬어 정착시킨 사례들

유럽에서도 경찰 조직을 통폐합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덴마크는 2007년 54개였던 경찰관할을 12개로 줄였고, 스코틀랜드는 2013년 8개 지역 경찰을 단일 조직 '폴리스 스코틀랜드'로 통합했다. 스웨덴 역시 2015년 21개 지방경찰청을 하나의 국가 조직으로 합쳤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통합 초기에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개혁 초기 시민 만족도와 수사 성과가 주춤했지만, 이를 지켜보며 2020년 지역사회 밀착 기능을 보장하는 후속 개혁을 추진해 균형을 다시 맞췄다. 스코틀랜드는 통합을 서두른 탓에 현장 조직 통합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역 책임성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여전히 논의 중인 과제로 남아 있다. 스웨덴 역시 초기 성과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후 현장 밀착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례들을 "실패"로 단정 짓기보다는, 대규모 조직 개편에는 응당 적응 기간과 보완 조치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례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실제로 세 나라 모두 개편 자체를 되돌리지 않았고, 대신 부족한 부분을 찾아 계속 보정해가고 있다. 개혁이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며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인 셈이다.

2026년, 잉글랜드·웨일스의 '200년 만의 최대 개혁'

가장 시의성 있는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잉글랜드·웨일스의 개혁이다. 2026년 1월, 영국 내무장관은 "200년 만의 가장 큰 치안 개혁"이라며 백서를 발표하고 현행 43개 경찰을 12개 광역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중대범죄만 전담하는 신설 전국 조직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발표 직후 일선에서는 "지역별 예산과 지원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지역 밀착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앞서 겪은 스코틀랜드의 통합 과정과 진통이 이번 설계에서 '미리 보완해야 할 지점'을 짚어주는 귀중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선 나라들의 시행착오가 다음 나라의 설계도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정책 학습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보다 기동성... '움직이는 경찰서'가 늘어난다

인구가 급감한 지역에서는 경찰서 건물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도 부담이다. 이 흐름에서 가장 풍부한 사례를 보유한 곳은 영국이다. 웨일스 경찰은 회의 공간과 간이 주방, 와이파이까지 갖춘 이동식 경찰서 차량을 도입해, 관할서에서 먼 농촌 주민들이 사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경찰관을 만날 수 있게 했다. 잉글랜드의 한 지역 경찰은 1년 넘게 이동식 경찰서를 300일 이상 운영하며 전담 거점이 없는 마을들을 순회했고, 다른 지역은 이보다 작은 '비트 버스(순찰 버스)'로 더 좁은 골목까지 파고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된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화상 연결 기반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확대해, 단순 민원은 굳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건물을 줄이고 이동성을 높이는' 전략이 어디서나 통하는 건 아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순찰차가 곳곳에 상시 배치되어 있어 건물 위치와 대응 속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지만, 관할이 광활한 농촌에서는 거점의 위치 자체가 대응 시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반론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도시와 농촌에서 전혀 다른 셈법이 작동한다는 뜻이며, 이 역시 앞서 소개한 일본의 '선별적 재설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Number of police forces to be cut in major shake-up

23 January 2026

Share

Save

Add as preferred on Google

Nick Eardley

Political correspondent



●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경찰 인력 감축안에 대해 보도한 BBC뉴스 홈페이지 화면



● 밴을 활용하여 만든 이동식 경찰서, 영국 윌트셔 경찰

'증원'이 아니라 '균형 잡힌 재설계'

해외 사례는 인구 감소 시대 치안의 해법이 단순한 경찰 증원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조직과 인프라를 다시 짜는 접근이 치안 분야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조직 개편 자체가 문제였던 경우는 없었다. 진짜 관건은 '무엇을 통합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하느냐였다. 일본은 도시권 효율화와 농산어촌의 지역 밀착 거점 유지를 분리해서 접근함으로써 안정적인 모델을 유지하고 있고, 덴마크·스코틀랜드·스웨덴은 초기 통합 과정에서 놓쳤던 지역 밀착성을 뒤늦게라도 보완하며 제도를 계속 다듬어가고 있다. 지금 잉글랜드가 준비 중인 개혁 역시 앞선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 삼아 더 정교한 설계

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 즉 해외 사례들이 공통으로 주는 교훈은 "개혁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가 아니라, "지역 밀착성이라는 가치를 설계 단계부터 함께 담아내면 개혁과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농촌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만큼, 기존의 관할 체계와 파출소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광역 단위 치안 협력 확대, 이동형 치안 거점 구축, 디지털 신고 시스템 활성화, 경찰·소방·복지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 강화는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도시권 효율화, 농산어촌은 지역 밀착형 거점 유지"라는 이원적 접근을 참고한다면, 조직 개편과 지역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설계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건축의 눈으로 보는 경찰

한국 치안의 두 중심축 '미군동 경찰청'과 '내자동 서울경찰청'

글 / 그림 : 임진우 · 건축가, 정림건축 전 대표이사

도시의 안녕을 책임지는 건축물은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띤다.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기능성과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국가의 기강을 시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중심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두고 마주 선 미군동의 경찰청 본청(1983)과 내자동의 서울경찰청(1989)은 1980년대라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 두 건축가가 공공건축에 남긴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다.



● 미군동 경찰청 본청 (1983) — 펜수채화, 임진우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수직의 선언, 미군동

미군동 청사는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 김수근(공간건축)의 후기 시선을 담고 있다. 1983년, 분산되어 있던 치안 기능을 하나로 묶기 위해 탄생한 이 건물은 외관에서부터 강렬한 수직적 모티브의 선언을 감행한다. 은회색 알루미늄 판넬로 마감된 원형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모습은 공공기관의 강직성을 드러낸다. 당시 석재마감 위주의 딱

딱하고 엄격한 공공건축에 비해 메탈릭한 소재의 외장재는 탈권위를 향한 매우 신선한 건축적 도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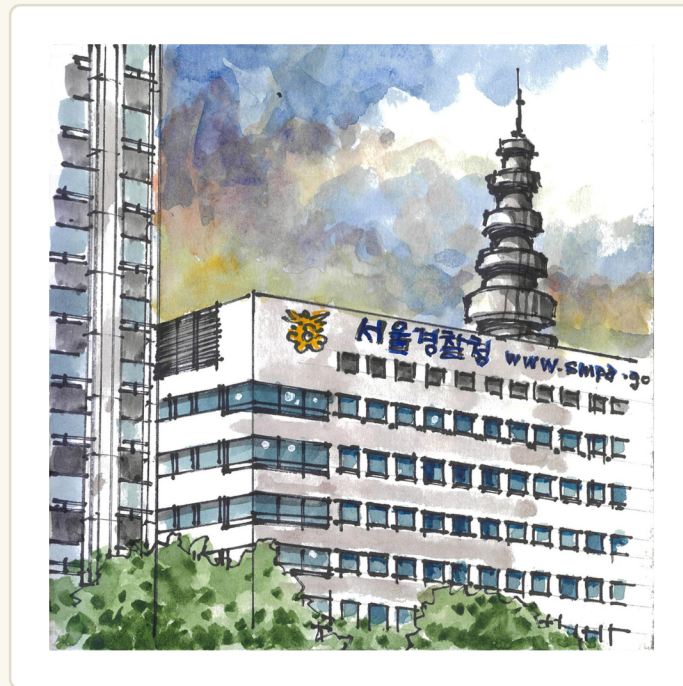
이 건물의 진정한 가치는 내부 공간의 해방감에 있다. 김수근은 내부에 기둥을 최소화하여 넓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철골 비렌딜 구조(Vierendeel Truss)를 채택했다. 철골 비렌딜 구조는 대각선 가새없이 수평재와 수직재가 강접합으로 맞물려 사각형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트러스 구조 시스템이다.

이는 경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스팬 공간*의 구현이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시원하게 열린 내부 아트리움은 자연광을 공간 깊숙이 끌어들인다. 구조적 견고함 속에 인간적인 숨구멍을 틔워둔 셈이다.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경찰 청사 내부에 온기를 더하는 이 공간은, 직원들의 휴게 공간과 대강당·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다만 준공 후 4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보니, 지금의 사용자들에게는 낮은 천장과 원활하지 않은 환기 상태가 답답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는 현대적인 스마트 오피스의 개념이나 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지어진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장스팬(long span) 공간 :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스팬)을 길게 잡아, 내부에 기둥이 거의 없이 넓게 트인 대형 개방 공간. 칸막이·좌석 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사무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



● 내자동 서울경찰청 (1989) — 펜수채화, 임진우

권위를 걷어내려는 감각, 내자동

반면, 6년 뒤인 1989년에 완성된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다. 이상수 건축가(선진엔지니어링)가 설계한 이 청사는 과거 관공서 특유의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외장재로 견고한 석재를 사용하면서도, 다채로운 창호 형식과 커튼월 구조를 활용해 모서리를 가벼운 유리면으로 처리했다.

이는 '열린 치안'과 '소통'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대변하는 요소다.

동시에 공공청사로서의 신뢰감도 놓치지 않았다. 외벽에 구멍을 뚫은 듯한 '펀치드 윈도우(Punched Window)' 스타일의 입면 디자인은 구조적 견고함과 묵직한 볼륨감을 강조한다. 또한 이 방식은 유리 면적이 제한적이어서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데 유용하며, 외피 열관류율을 조절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건축 계획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철골·철근콘크리트 복합 구조를 통해 방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단정하고 정갈한 외관으로 도시 풍경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단단한 15층 매스 상부에 솟은 수직 타워는 경찰 자체 무선 통신망을 위한 안테나로, 시각적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다만 치안을 위한 핵심 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이에 비해 다소 육중하고 둔탁해 보이는 비례는 아쉽다. 후배 건축가의 시선으로 이 건물을 마주할 때마다 늘 미련이 남는 대목이다. 먼 훗날 리모델링을 거치게 된다면, 저상부 타워에 멋진 회전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되돌려주는 상상을 해본다.

두 청사가 증명하는 공공건축의 궤적

두 건물은 모두 지하 3~5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형 구조물이자 각자의 해에 건축상을 거머쥐거나 시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인정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근동은 '가벼운 외장재 (원형 알루미늄 패널) 사용과 내부의 유기적 개방성(아트리움)'에, 내자동은 '무거운 외장재(화강석) 사용으로 외부를 향한 시각적 안정감과 신뢰감'에 방점을 찍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근동 청사가 거대한 요새 내부에서 효율성과 빛의 변주를 꾀했다면, 내자동 청사는 당시 8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민주화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관공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변신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두 건축 모두 당시에는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각에서는 공공건축, 치안건축의 상징성과 권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

만약 새 시대에 걸맞은 경찰청사를 새롭게 신축한다면 건립 지침서에 담아야 할 중요 과제는 무엇일까. 미래지향적 치안 환경 대응, 시민 개방성, 친환경·스마트 기술 통합, 그리고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간 전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고려해야 할 본질적인 이슈가 있다. 국가 치안청사는 단순한 행정 건물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민주적 치안의 가치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시각적 랜드마크 크이자 상징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서대문역과 경복궁역 인근을 지날 때, 우리는 단순히 치안을 총괄하는 관청을 보는 것이 아니다. 구조의 힘으로 내부를 해방시킨 김수근 건축가의 논리와, 석재 디테일의 조화로 권위를 견어내려 했던 이상수 건축가의 감각은 예사롭지 않다. 1980년대라는 민주화의 짧은 터널을 지나며 한국의 공공건축이 어떻게 '권위'에서 '기능'으로, 다시 '소통'으로 진화해 나갔는지 그 궤적을 두 청사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



임진우 건축가·정림건축 전 대표이사

임진우 건축가는 정림건축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봉원교회, 이대서울병원, 한국야쿠르트 사옥 등을 설계했다. 건축작업 외에도 화가로 펜수채화 개인전을 열고 감성 에세이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골경찰 LIVE

“내가 바위에 매달려 생각한 것들”

김승혜 경감 · 제주서부경찰서 하귀파출소 순찰2팀장



저는 “가장”이라는 말에 약합니다. 제가 나름 1인 가정의 가장이라, 가장의 수고로움을 잘 알아서...는 아니고요. “가장 행복했던”, “가장 슬펐던” 같은 수식어가 붙는 딱 하나의 경험을 꼽는 일에 재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당찮은 개그, 죄송합니다.) 꽤 행복했던, 꽤 슬펐던 일을 꼽으려면 기억을 더듬어가며 몇 가지쯤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냐는 질문에는 주저하지 않고 내놓을 대답이 있습니다.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라는 어느 선배의 말입니다.

너.까.지.라고 하는 데서, 제 순서가 첫 번째는 아니었다는 걸 알아채셨겠지요. 저를 앞섰던 건 그 선배에게는 친한 동생이고 저에게는 좋은 선배였던 사람입니다. 이 직업을 천직이라고까지 말 하던 이였고요. 갑작스럽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따금 우리는 “힘들었으면 일을 관두지, 왜 그렇게까지 했어....”하고 듣는 이 없는 핀잔을 탄식처럼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첫 번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내리고 싶어요....”하고 엉엉 울며 조퇴하고 집에 갔을 때, 위기 경보가 그토록 빨리 발령될 수 있었을 테지요.

저는 남았고, 일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 반년 넘도록 해가 바뀔 때까지 저를 버틸 수 있게 한 건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라던 말이 남긴 감동과 충격, 매일 저의 출근 여부와 안녕함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들, 매점 앞 돌의자에서 동기들과 마시는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죽으면 없어질 몸, 사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쓰자.’하고 마음먹고 덜컥 등산 학교에 등록하면서 발을 들이게 된 암벽등반입니다.

여름 막바지에 주말마다 이틀씩, 5주 과정의 등산학교에서 응급처치법, 그리고 등산과 암벽등반에 대해 이론과 실습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순한 의도도 조금은 있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등반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좋겠지. 그렇지만 추락해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도 나쁘지 않아.’하고요. 물론 제가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네스, 자기확보줄, 카라비너, 슬링, 퀵드로우 같은 생소한 이름의 안전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위에서는 선생님이 제가 묶여있는 로프를 당기고 아래에서는 엉덩이를 밀어 올렸으니까요.

암벽등반은 바위에 돌아 있는 티끌만 한 손자리를 쥐어뜯고 발자리를 디터 서는 움직임의 연속입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마찰력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옛날 중국의 전족처럼 발에 꼭 맞거나 오히려 몇 치 수 작은 암벽화가 필수지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꽉 끼는 새 암벽화를 신고 있노라면, 발톱은 오그라들어 발가락에 박힐 것 같고 뒤꿈치는 꽉 조여들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등반할 때는 정신이 없어 모르지만, 한 구간을 다 오르고 나서 위아래 사람의 등반을 기다리는 동안은 우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응, 그래. 아프면 잘라. 잘라서 나 두 개만 줘.”

등산학교에서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발가락 열 개가 모두 없는 분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중앙 아시아에 있는 포베다라는 높은 산(7,439m)에 오르다가 동상에 걸려서 까맣게 죽은 발가락을 모두 잘라내셨지요. 아픈 발가락을 잘라내면 아프지 않다는, 발가락 잘라내신 분의 대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만 무슨 말이든 웅얼거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발은 계속 아팠고, 그 무렵에도 저는 여전히 잠 오지 않는 밤과 울며 일어나는 아침을 맞으며 지내고 있었기에 투정 섞인 한마디를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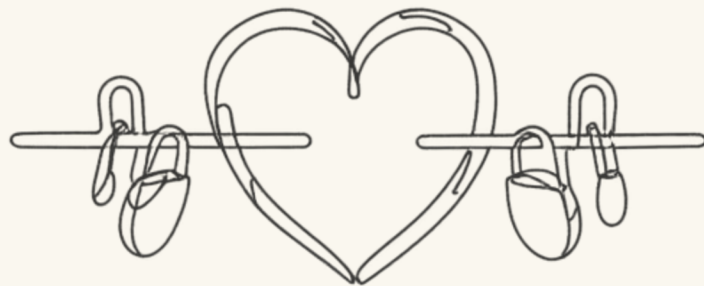
“그럼, 마음이 아프면 어떡해요?”

“마음이 아파? 꺼내봐. 아프면 자르면 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데?”

띠용!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꺼내 보여줄 마음이라는 게 대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란 것이 과연 보이는 것인가요, 만져지기라도 하나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던가요. 마음은 아무데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득, 어디에도 없는 마음을 어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일이 바보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어딘가에 있더라도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 두면 될 게 아닌가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조금씩 살 만해졌습니다. 산에서 찍은 사진 속 제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 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 말고 한 마디 더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평생 잊지 못 할 이야기입니다. 흠, 역시 저는 “가장”이라는 말에 단호하지 못하네요.

너무 바쁘지 않으시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나요? 하나 여쭙어보려고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즐겁고 평온하시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아프고 괴로우신가요? 그 마음이 어디 있나요? 한 번 꺼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라드리게요. 어디에도 없어서 꺼낼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힘드시다면 대신 손바닥이나 툇툇 털어버리지요. 그리고 여태 해본 적 없는 일을 감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신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는 일 말고는 무엇이든 응원할게요.



김승혜 (김누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했다. 2019년에 「혼자를 지키는 삶」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생방송 시골경찰>이라는 블로그 (blog.naver.com/gomyamy)에 바닷가 마을 파출소의 일상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계속 글로 쓰고 있다. 최종 학력은 등산학교 졸업, 해녀학교 재학 중.

아더, 현장을 떠난 자리에서도 동료였다

은퇴견 '아더'가 말해주는 경찰견의 삶

정유선 순경 ·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경남경찰특공대 소속 마리노이즈 '아더'. 2017년 6월 27일생, 수컷. 신고출동과 시범식 임무를 수행했고,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와 관세청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이력을 가진 우수 탐지견이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했다.

이 문장 하나로 아더의 삶을 요약할 수는 없다.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은퇴 이후 맞닥뜨린 현실은 대한민국 모든 경찰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더가 경찰견이 되기까지, 그는 먼저 '선발'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경찰견 선발 기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능이 아니다. 건강한 신체 조건과 안정적인 정신적 특성이다. 아무리 영리한 개체라도 질환이 있거나 체력이 부족하면 특수목적견의 자리에 설 수 없다.

두 번째 관문은 집중력과 회복탄력성이다. 같은 견종이라도 10초 만에 흩어지는 개가 있는가 하면, 10분 넘게 몰입하는 개도 있다. 급박한 현장, 낯선 소음과 냄새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놀란 순간에도 빠르게 평정을 되찾는 힘. 아더는 그 기준을 통과한 개체였다.



● 경남경찰특공대 마리노이즈 '아더' — 2017년생, 그리고 지금은 은퇴견



● 현역 시절의 훈련 — 핸들러와 아더는 말이 아닌 신호와 교감으로 한 팀이 된다



●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 교육 — 교육견과 함께하는 강의



● "High five" — 개의 기준을 존중하는 훈련 시연

사람이 아닌, 개의 기준으로

경찰견 교육은 연간 약 8회, 현장 경찰관과 핸들러 전입자를 대상으로 약 1주간 진행된다. 한 기수에 10명 내외가 참여해 경찰견의 이해, 기초 인지 훈련, 복종 훈련, 클리커 훈련, 수색 훈련, 어질리티*까지 배운다. 여기에 행동학, 사양학, 응급처치 교육이 더해진다.

그러나 이 교육의 핵심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에 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개의 습성과 기준을 존중하는 것. 핸들러는 끊임없이 개체를 관찰하고 그 행동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개는 사람에게 완전히 맞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더와 그의 핸들러도 그렇게, 말이 아닌 신호와 교감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갔다. 언어가 없는 자리를 채운 것은 반복된 눈맞춤과 몸짓, 그리고 신뢰였다.

임무, 그리고 확장되는 역할

아더가 현장에서 뛰던 시기, 경찰견의 역할은 이미 전통적인 수색·탐지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범죄 수익 은닉에 쓰인 USB·SD카드·하드디스크 냄새를 탐지하는 전자기기 탐지견, 아동·성범죄 피해자 조사에 동행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피해자 심리 지원견, 참혹한 현장을 경험한 경찰관의 PTSD 치료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경찰관 트라우마 치료견까지. 일본의 촉각경찰견 제도를 참고한 민간 우수견 활용 연구, 실시간 영상과 심박·체온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K9 Cam', 셰퍼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견 진돗개를 실전 배치하려는 시도까지 — 경찰견의 자리는 계속 넓어지고 있었다.

그 확장의 한복판에서, 아더는 신고출동과 시범식이라는 임무로, 전술평가대회와 탐지견 경진대회 입상이라는 기록으로 자신의 몫을 해냈다.

일곱 살 여덟 달, 은퇴라는 이름의 전환점

경찰특공대 경찰견의 평균 은퇴 나이는 7.8세.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60~70대에 해당한다. 고령, 부상,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워지면 그들은 현장을 떠난다. 아더 역시 고령으로 체력과 훈련 능력이 저하되며 은퇴를 맞았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대형견이라는 특성, 사육 비용 부담, 이미 고령에 접어든 시점.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일반 가정으로의 분양은 쉽지 않다. 분양 공고를 올려도 문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입양자를 찾지 못한 일부 은퇴견은 경찰기관에서 일정 기간 관리되며, 이때는 더 이상 현장 훈련 없이 기본적인 생활·건강 관리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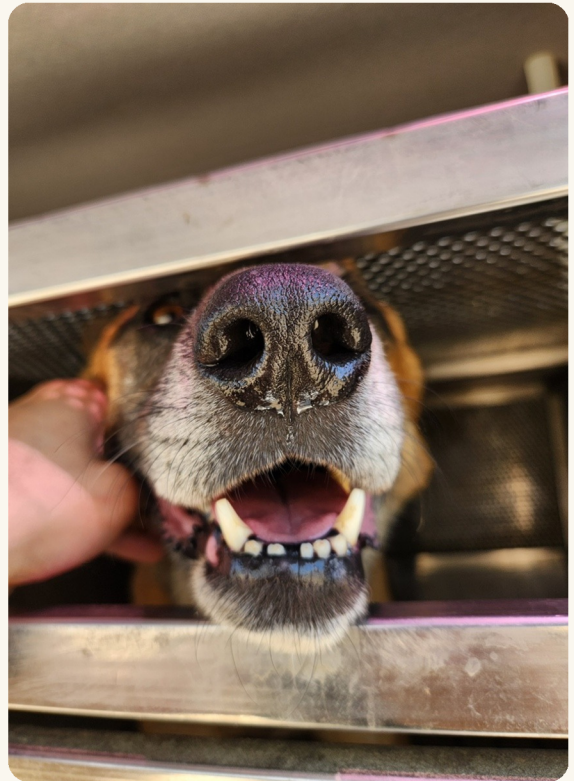
이 지점에서 담당 경찰관들의 방식이 흥미롭다. 이들은 공고만 기다리지 않는다. 산책길에서,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먼저 묻는다. "혹시, 입양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더가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입양된 것도 이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만든 결과였다. 마당이 있고 반려견을 키울 환경을 갖춘 지역 주민들의 존재가, 제도가 채워지 못한 틈을 메워준 셈이다.

* 어질리티(agility) : 개가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허들·터널·시소 등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훈련. 순발력과 집중력, 핸들러와의 호흡을 기르는 데 쓰인다.

동료를 배웅하는 방법

경찰은 최근 은퇴견의 삶을 조금 더 촘촘히 챙기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34개 동물병원에서 전 과목 진료비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경찰특공대가 발급하는 입양 확인증을 통해 두당 약 50만 원 규모의 사료·켄넬·애견용품·의약품이 지원된다.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삼성화재 등 참여 보험사의 펫보험 가입 시 최대 5% 할인, 한국펫사료협회 참여 업체 제품 20~50% 할인도 마련됐다. 예방접종과 치료 이력을 담은 건강관리 수첩도 함께 전달된다.

순직한 경찰견을 위한 추모 공간도 늘고 있다. 현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경남·제주 8개소에 조성돼 있고, 서울·울산·세종·경기북·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10개소는 연차별 예산으로 순차 조성될 예정이다. 장례 지원 역시 한국동물장례협회,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참여 업체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참여 기관이 아직 많지 않아 전국 단위 지원 체계라 부르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 켄넬 틈으로 코를 내밀어 인사를 건네는 아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따로 있다. 현재 은퇴견은 무료 분양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 기준은 아직 보완이 필요한 단계다. 소방·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탐지견까지 아우르는 전담 관리 시설 법안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거나 확정된 제도는 아직 없다.

다시, 아더

아더는 운이 좋은 축에 속한다. 그를 받아준 마을이 있었고, 먼저 물어봐 준 담당 경찰관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은퇴견이 아더처럼 마당 있는 집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경찰견은 장비가 아니다. 후각과 기동력을 가진 도구도 아니다. 오랜 시간 경찰관 곁에서 같은 현장을 함께 견뎌온 동료다. 그 동료를 양성하고 운용하는 일 못지않게, 임무를 마친 뒤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일도 경찰 조직의 몫이다.

아더의 이야기는 은퇴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지금 어느 마당에서 별을 찌고 있듯, 경찰견의 삶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된다.



●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교감 — 핸들러 곁의 아더

※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 전문경력관 나군 이은채 교수님, 경위 박문재 교수님, 경남경찰특공대 경사 김종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일본의 코반

일본의 파출소, 미국을 넘어 유럽의 골목길까지 바꾸다

편집부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과 경제 침체가 한꺼번에 몰아친 1970년대 후반의 미국 대도시는 그야말로 범죄와의 전쟁터였습니다.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의 강력범죄율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민들은 해가 뜨면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미국 경찰의 주류 패러다임은 순찰차를 타고 감시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사이렌을 울리며 신속하게 출동하는 이른바 '신속 대응(Rapid Response)'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와 고성능 순찰차를 쏟아부어도 범죄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경찰과 지역 커뮤니티 사이의 거리감만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기로에서 미국의 범죄학자들과 개혁적인 경찰 행정가들은 시선을 태평양 건너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꼽히던 일본, 그리고 그 동네 골목길마다 붉은 등 하나를 켜고 자리를 지키던 작은 파출소 '코반(交番)'이었습니다. 육중한 장갑차나 철창이 쳐진 거대한 경찰서 대신, 유리창 너머로 순경이 앉아 동네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 소박한 공간이 미국의 범죄학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 일본의 코반(交番 KOBAN)은 우리나라의 파출소와 유사하나 규모가 더 작다

차창을 내리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간 경찰들

데이비드 베일리(David H. Bayley) 같은 미국의 석학들이 일본의 코반 시스템을 집중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범죄를 막는 것은 강력한 물리력이 아니라, 주민과의 촘촘한 '연대'라는 점이었습니다. 코반의 핵심은 단순히 건물이나 순회 연락(巡回連絡)이라 불리는 가호 방문 제도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지역 주민의 집과 상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지, 최근 골목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직접 묻고 들으며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경찰학계는 이 동양의 오랜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차 유리창 뒤에 숨어 거리를 감시하던 경찰관들에게 "차에서 내려 주민과 눈을 맞추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경찰의 교과서가 된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시초였습니다. 미국식으로 재해석된 코반 제도는 '이웃 순찰(Neighborhood Policing)'이라는 이름으로 디트로이트와 뉴욕의 우범지대에 이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어크와 휴스턴이 증명한 '보이지 않는 파수꾼'의 기적

코반 제도의 미국 이식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것은 뉴저지주 뉴어크(Newark)와 텍사스주 휴스턴(Houston)에서 진행된 대규모 경찰 활동 실험이었습니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경찰재단의 주도로 진행된 이 실험에서 경찰은 순찰차의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일본의 코반을 벤치마킹한 '동네 간이 파출소(Storefront Station)'를 골목 한복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직접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이웃의 목소리를 듣는 도 보 순찰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치상의 범죄 발생 건수가 즉각적으로 폭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골목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Fear of Crime)'가 극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늘 범죄 불안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노인들이 다시 거리를 걷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동네의 불량배나 수상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돌아 범죄 검거율과 예방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철저히 단절되어 있던 경찰과 시민의 신뢰가 코반이라는 작은 연결고리를 통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의 미래 치안으로 진화하다

동양에서 태동해 미국에서 만개한 코반의 치안 철학은 21세기 들어 유럽연합(EU)의 거대한 국경 연대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문화 갈등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고립, 그리고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커뮤니티 폴리싱의 결합'을 골자로 하는 '코반(KOBAN)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과거의 코반이 단순히 물리적인 파출소 건물을 뜻했다면, 유럽연합의 코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치안을 위한 거대한 디지털 및 휴먼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 코반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경찰이 주도하며 유럽의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유럽의 코반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되, 그 본질은 철저히 주민 중심이었던 일본의 순회 연락 정신을 계승합니다. 경찰관들이 소외된 이민 가정과 현지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를 빅데이터 및 모바일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았지만, 결국 그 핵심 동력은 과거 일본과 미국이 증명했던 '주민과의 신뢰 관계'에 둔 셈입니다.

세계 커뮤니티 폴리싱의 표준이 된 동양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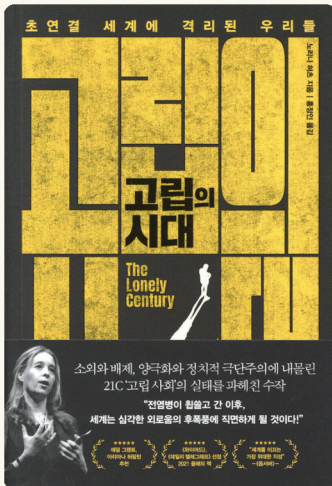
미국을 거쳐 싱가포르의 NPP(Neighborhood Police Post) 제도로 완벽하게 정착하고, 이제는 유럽연합의 첨단 치안 프로젝트로까지 확장된 이 시스템은 시공간을 초월한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치안 불안으로 골머리를 앓던 브라질 상파울루와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까지 수출되어 고질적인 살인 범죄율을 낮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경찰의 순찰 패러다임을 바꾼 이 극적인 역사는, 가장 효과적인 치안은 하늘을 나는 헬기나 고성능 컴퓨터가 아니라 주민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경찰관의 따뜻한 발걸음과 진정성 있는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독서 후기 ‘고립의 시대’를 읽고

‘고립의 시대(The Lonely Century)’를 넘어,
‘연결의 시대(The Connected Century)’를 설계하다

조민호 경사 · 부산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고립의 시대

The Lonely Century

노리나 허츠 지음

홍정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 2021

‘외로움(Loneliness)’은 이제 인류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마스크에 묻혀 우리는 사소한 상호작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시골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함께(With)’, ‘우리(We)’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홀로(Alone)’, ‘나(I)’라는 단어로 채워졌다.

세상은 점점 ‘먹방 시청(혼밥)’, ‘SNS 일상화’,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등 모든 시공간에 ‘개인’의 편리함으로 채워졌고, ‘연대’, ‘공동체’가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져갔다. 이 책의 저자인 ‘노리나 허츠’는 글의 ‘서두부터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고립되고, 외로워져가는 현시점을 우려의 시선으로 줄곧 바라본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한 부분에서 찾지 않고, 여러 요인이 섞인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를 떨어뜨려 놓을 방법이 아니라,

하나로 모을 방법 말이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포용과 공동체’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전한다.

그 역할에는 우리 ‘지역경찰’도 동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은 매일 시민 곁으로 출동한다. 그리고 매일 현장에서 ‘고독’, ‘외로움’의 흔적을 살피고 치유하는 작업을 한다. ‘고독사’, ‘가정폭력’, ‘자살위험 신고’, ‘정신질환자 발생’, ‘흥기 난동 사건’, ‘충간소음 신고’ 등 다양한 현장과 마주한다. 모두 각기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가 ‘노리나 허츠’는 글의 후반부로 갈수록, ‘공동체 의식’, ‘포용’, ‘아날로그식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를 촉구한다. ‘AI 기술의 발전’, ‘로봇 기술 상용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함께’, ‘연대’, ‘공동체 의식’을 강제적으로 수혈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변화’를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 ‘지역경찰’은 매일 외롭고 고립된 자들과 대면한다. ‘치매 노인’, ‘정신질환자’, ‘독거 청년·독거 노인’ 등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희망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세심한 관심으로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또한 그들 주위에는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나 사정을 자세히 들어줄 수 있는 이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우리 지역경찰을 찾는 이유 역시 어쩌면 책에서 얘기하는 ‘제3의 공간(의견을 교환하며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해서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모두가 ‘우리가 아닌 나(Not us, But me)’를 외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가 아닌 우리(Not me, But us)’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모두가 동참하여 반복하는 등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를 넘어 경찰관과 함께 개개인 모두가 동참해야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모두가 ‘우리가 아닌 나(Not us, But me)’를 외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가 아닌 우리(Not me, But us)’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민호경사 · 『고립의시대』를 읽고

도서 『고립의 시대』는 ‘고립,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장 원초적인 과제임을 일깨워 준다. 여기에 우리 지역경찰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최후의 연결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순찰과 신고처리는 지역경찰의 기본업무다. 그동안 현장에서 단순히 매뉴얼과 정해진 법률에 따라 신고를 처리해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관계기관과 연계하며, ‘공동체의 안전 망’을 이어주는 역할을 포용적·연대적으로 수행해나갔으면 한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립’의 신호

고독사 · 가정폭력 · 자살위험 신고 · 정신질환자 발생 · 흥기 난동 사건 · 층간소음 신고

‘고립의 시대(The Lonely Century)’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의 시대(The Connected Century)’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지역경찰이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구국의 영웅들을 찾아 떠난 경찰 역사 순례길

— 다부동전적기념관 방문기(경북 칠곡) —

최지수 순경 · 대구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 / 현장경찰LIVE기자단

전투 시기	참전 구국경찰	최후 방어선	올해로
1950년8월	15,000 여 명	낙동강 전선	76 주년

이번 다부동전적기념관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6월, 우리는 ‘호국의 달’로 부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린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바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전사(戰史) 속에서, 군인들 못지않게 치열하게 싸웠던 ‘구국경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경찰역사순례길’의 일환으로 이곳을 찾았다.

1950년 8월, 개전 초기 북한군의 기습 남하로 국군은 최후 보루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으며, 만약 다부동이 돌파했다면 임시 수도 대구와 유일한 보급항인 부산이 함락되어 대한민국이 적화될 위기였다.



▲ 다부동전적기념관 전경 — 참전국의 국기가 도열한 기념관 앞마당.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군·경의 헌신을 기리는 조형물이 자리한다.

흔히 이 전투는 국군 제1사단과 미군의 합동 작전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조병옥 내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참전한 15,000여 명의 구국경찰관들이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전국의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투경찰대'는 정규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최전방에 투입되어 유학산, 328고지 등 칠곡 일대의 주요 고지전을 수행했다.



▲ 구국경찰추모비 —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산화한 경찰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어 다부동전적기념관 현장에는 군인들을 기리는 추모비 뿐만 아니라, 참전 경찰관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구국경찰추모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 추모비는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전사한 유동열 경무관을 비롯한 전사자들과, 대구 사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15,000여 명의 구국경찰들의 공적을 기리는 상징물이다. 정규 군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애국심 하나로 고지를 사수했던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돌아볼 수 있었다.

다부동전적기념관과 구국경찰추모비 순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에 생각보다 많은

야외 전시장의 중장비들과 대조되는 개인 화기 위주의 열악한 무기 체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사전의 의지로 장비의 공백을 메우며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대구 사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다부동 전투는 군·경의 완벽한 공조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 전사자 명비 — 내무부 장관 조병옥을 비롯해 각 시·도 경찰국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람이 방문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치안은 낙동강 전선의 가파른 고지 위에서 군인과 경찰이 피로써 지켜낸 위대한 유산이다.

이번 순례는 단순한 역사 탐방을 넘어, 오늘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경찰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방패가 되었던 구국경찰의 숭고한 사명감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 기념관 전시 — '55일간의 치열한 혈투, 구국의 현장 다부동'. 55일간 이어진 다부동 전투의 기록을 만날 수 있다.

서울女子警察署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범죄예방 MAGAZINE ●

현장경찰 LIVE

원고 모집

다양한 현장 사례와
현장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폴메일 '지역경찰역량강화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경찰 'LIVE' 소식지 제작 관련 문의

경찰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 | TEL. 02-3150-2401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